

# 최근 경기에 대한 인식과 정책대안

## I. 현 경기 및 물가 동향에 대한 인식

- 최근 산업 및 서비스업 활동 동향
- 최근 경기변동 추이
- 각종 경기조사지표의 추이
- 최근 물가동향에 대한 이해

## II. 경기바닥인가? 하강지속인가?

- 경기바닥 주장의 근거
- 경기하강지속 주장의 근거

## III. 정책 대안

- 국내불안심리 해소 및 경기부양적 거시경제정책 기조 유지
- 통화신용정책
- 재정조세정책
-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

# 1. 현 경기 및 물가 동향에 대한 인식

## □ 최근 산업 및 서비스업 활동 동향

— 금년 들어 생산 증가세는 크게 둔화, 소비 및 설비투자는 감소세

- 산업생산은 금년 4월 반도체(14.9%), 자동차(8.5%) 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섬유(-13.1%), 의복 및 모피(-25.5%) 등의 감소로 인해 전년동월대비 불과 1.8%의 증가를 기록하였고, 금년 들어 증가세가 크게 둔화

※산업생산: 9.5%(2002년 4/4분기) → 6.1%(2003년 1/4분기) → 1.8%(4월)

※4월 산업생산 계절조정치 전월비는 1.9% 감소

※제조업 평균가동률 전월차: 0.4%p(2003년 2월) → -1.0%p(3월) → -0.3%p(4월)

<표 1> 산업활동동향 추이

(단위: 전년동월(기)비, %)

	2002년				2003년			
	4월	3/4	4/4	연간	1/4p	2월	3월p	4월p
○산업생산지수	10.6	5.3	9.5	7.3	6.1	10.2	5.0	1.8
(반도체제외)	(9.0)	(3.4)	(8.0)	(5.8)	(3.9)	(8.3)	(2.7)	(0.3)
·반도체	26.8	23.1	22.2	21.4	24.8	27.8	23.8	14.9
·자동차	14.3	1.3	20.2	8.1	14.0	25.4	12.0	8.5
·섬유	-3.1	-8.1	-2.6	-6.0	-10.0	-6.3	-12.1	-13.1
·의복 및 모피	16.5	6.5	2.5	7.4	-14.8	-13.5	-17.1	-25.5
○계절조정 전기비	0.8	0.7	2.7	-	0.5	0.3	0.6	-1.9
○평균가동률	78.1	76.7	77.2	76.9	77.4	77.9	76.9	76.6

자료: 통계청, 2003년 4월중 산업활동동향

- 도소매 판매는 4월에도 전년동월대비 4.3% 감소하여 3개월 연속 감소세 지속

※도매업판매: 1.0%(2003년 1월) → -0.2%(2월) → -3.5%(3월) → -2.9%(4월)

※소매업판매: 8.4%(2003년 1월) → -7.4%(2월) → -2.4%(3월) → -6.5%(4월)

- 작년 호황을 누리던 백화점은 감소세를 지속하였고 대형할인점은 증가세 둔화

※백화점: -1.7%(2002년 4/4분기) → -2.5%(2003년 1/4분기) → -8.4%(4월)

※대형 할인점: 15.6%(2002년 4/4분기) → 10.0%(2003년 1/4분기) → 5.3%(4월)

• 설비투자도 4월에 전년동월대비로 4.2% 감소

※설비투자: 3.1%(2002년 4/4분기) → -3.4%(2003년 1/4분기) → -4.2%(4월)

<표 2> 도소매판매 및 설비투자 추이

(단위: 전년동월(기)비, %)

	2002년				2003년			
	4월	3/4	4/4	연간	1/4p	2월	3월p	4월p
○ 도소매판매	7.9	5.1	4.4	6.0	-0.2	-1.8	-3.0	-4.3
· 도매업	5.6	2.6	3.3	4.1	-1.0	-0.2	-3.5	-2.9
· 소매업	7.2	5.4	2.6	5.2	-0.5	-7.4	-2.4	-6.5
· 자동차 및 연료	19.7	14.6	15.5	15.6	4.4	9.4	-2.8	-3.6
○ 설비투자	1.5	0.4	3.1	1.6	-3.4	-3.6	0.1	-4.2

자료: 통계청, 2003년 4월중 산업활동동향

— 서비스업 증가율도 연초 크게 둔화되었고 3월부터 2개월 연속 감소세

• 최근 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 보다 위축되어, 4월 도·소매업은 전년동월대비 5.1% 감소, 숙박 및 음식점업도 1.2% 감소

※숙박업: 3.6%(2002년 4/4분기) → -0.9%(2003년 1/4분기) → -10.5%(4월)

※음식점업: 4.6%(2002년 4/4분기) → 1.8%(2003년 1/4분기) → 0.7%(4월)

<표 3> 서비스업동향 추이

(단위: 전년동월(기)비, %)

	2002년				2003년			
	4월	3/4	4/4	연간	1/4p	2월	3월p	4월p
○ 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제외)	11.8 (9.6)	8.5 (7.6)	7.1 (6.8)	8.6 (8.0)	1.6 (1.9)	1.4 (1.6)	-0.2 (0.7)	-0.5 (-0.8)
· 도·소매업	7.5	4.5	4.3	5.5	-1.0	-1.8	-3.9	-5.1
· 숙박·음식점업	6.9	6.2	4.4	6.2	1.4	2.3	-0.6	-1.2
· 금융·보험업	19.4	11.5	8.1	10.4	0.8	1.0	-2.9	0.5
○ 제조업	10.8	5.4	9.4	7.3	5.8	10.1	4.6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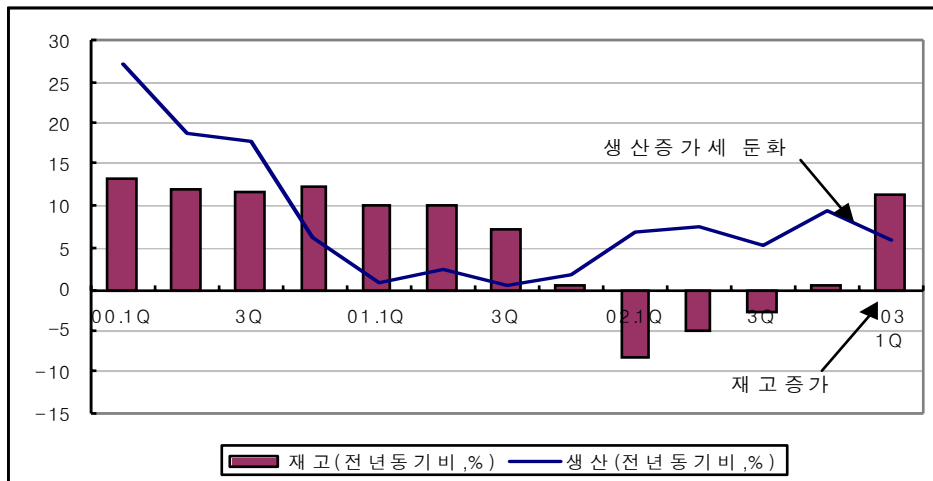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03년 4월 중 서비스업활동동향

- 작년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던 금융 및 보험업도 4월 전년동월대비 0.5%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 특히 증권거래업은 금년 4월 전년동월대비 38.0% 감소
- 서비스업 중 정보통신 서비스업 등의 지식기반 서비스업 증가세 둔화가 적음
  - ※ 지식기반 서비스업: 9.0%(2002년 4/4분기) → 4.2%(2003년 1/4분기) → 2.2%(4월)
  - ※ 기타 서비스업: 5.7%(2002년 4/4분기) → 0.7%(2003년 1/4분기) → -2.2%(4월)

## □ 최근 경기변동 추이

- 금년 1/4분기 생산은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재고는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어 경기하강국면 양상

<그림 1> 산업생산과 재고 추이



자료: 한국은행, 2003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잠정)

- 4월에도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및 선행지수 전년동월비 전월차가 감소하는 등 경기지표 악화 지속
- 금년 4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작년 8월(99.7) 이후 처음으로 100을 하회하는 99.1로 전월에 비해 0.9p 감소하여 3개월 연속 하강 지속

- 경기전환점 예측에 활용되는 경기선행지수 전년동월비 전월차가 4월에도 13%p 감소하여 작년 5월부터 12개월째 감소세를 지속하여 향후 경기하락지속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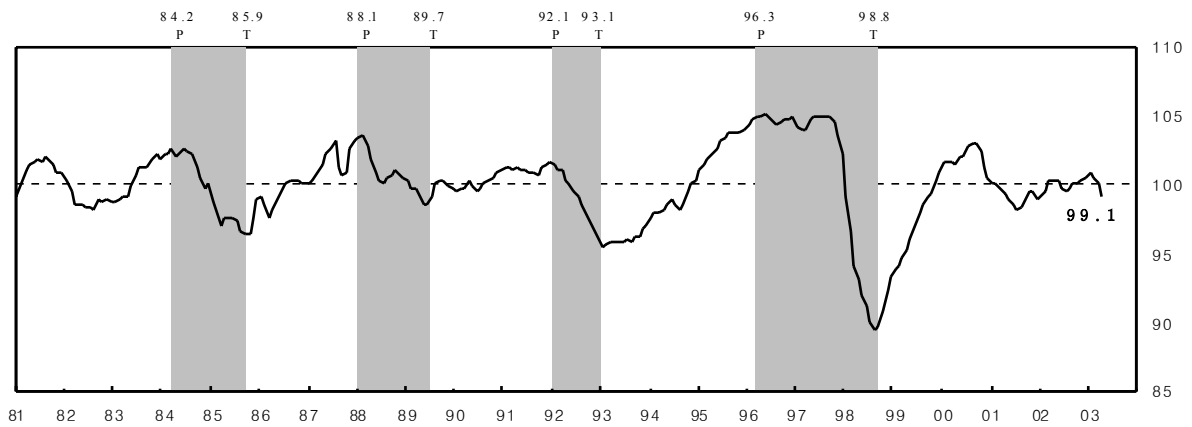
<표 4>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및 경기선행지수 전년동월비 추이

(단위: %, %p, p)

	2002.9	2002.10	2002.11	2002.12	2003.1	2003.2	2003.3p	2003.4p
순환변동치	100.0	100.0	100.2	100.6	100.9	100.5	100.0	99.1
(전월차)	0.3	0.0	0.2	0.4	0.3	-0.4	-0.5	-0.9
전년동월비	7.1	6.3	5.8	5.3	4.4	3.1	1.5	0.2
(전월차)	-0.5	-0.8	-0.5	-0.5	-0.9	-1.3	-1.6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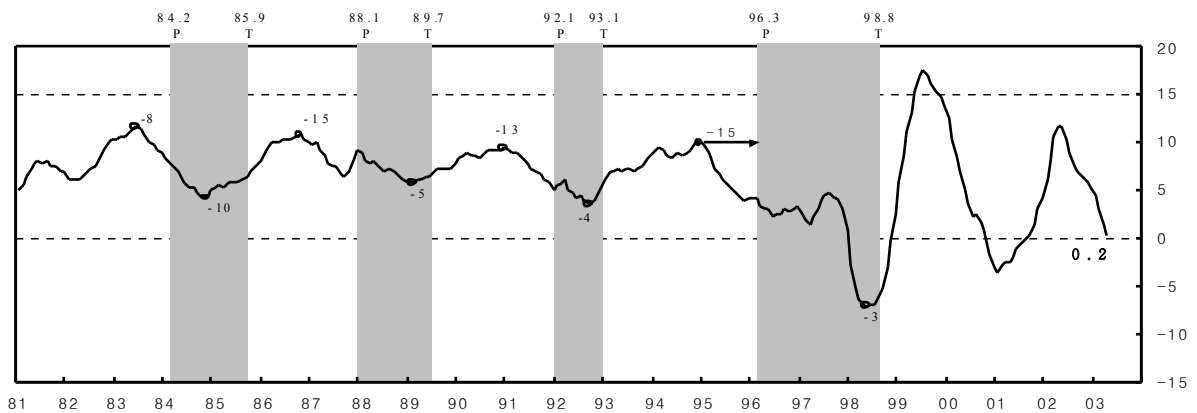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03년 4월중 산업활동동향

<그림 2>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자료: 통계청, 2003년 4월중 산업활동동향

<그림 3> 경기선행지수 전년동월비 추이



자료: 통계청, 2003년 4월중 산업활동동향

□ 각종 경기조사지표의 추이

－ 최근 한국은행의 제조업업황 BSI나 전경련의 기업경기실사지수(기준=100) 등 부진 지속

• 5월 중 한국은행 제조업 및 비제조업 업황 BSI가 작년 2/4분기 이후 하락세가 지속하여 기준치에 크게 미달하는 75와 68을 각각 기록

※ 제조업 중 수출기업의 체감경기는 5월 중 70을 기록하여 내수기업의 77에 비해 보다 더 부진한 경향

<표 5> 한국은행 제조업 및 비제조업 업황 BSI 추이

구 분	2002.2/4	3/4	4/4	2003.1월	2월	3월	4월	5월
제 조 업	114	99	96	80	75	72	77	75
수출	109	95	88	74	75	71	80	70
내수	116	100	100	83	75	72	76	77
비제조업	101	89	87	75	65	64	71	68

주: ‘호조’ 응답업체 구성비(%) - ‘부진’ 응답업체 구성비(%) + 100, 2002년 12월 이전은 분기 기준이며 2003년 1월부터는 월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2003년 5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 5월 중 전경련의 BSI 종합경기 실적치도 84.7을 기록하여 작년 10월(102.5) 이후 7개월 연속 기업경기부진 지속

※ 전경련 BSI: 90.2(1월) → 79.8(2월) → 89.3(3월) → 87.7(4월) → 84.7(5월)

－ 각종 BSI 지수의 악화는 향후 미국 및 세계 경제의 회복 불확실, 북핵문제로 인한 한미관계개선 불투명, 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로 인한 세계교역량 악화 등의 대외 불안요인과 함께,

• SK글로벌의 분식회계, 카드채 문제 등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가계부실화, 신용불량자 증가, 내수경기침체, 기업투자억류 위축, 향후 경기불투명 등의 대내 불안요인으로 인한 국내경기 기대심리 악화에 기인

□ 최근 물가동향에 대한 이해

－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4월부터 내림세로 전환되어 지속

- 소비자물가는 금년 초 미·이라크 전쟁이나 베네주엘라 파업사태 등에 따른 고유가 지속과 농산물 작황부진 등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였으나 4월부터 내림세로 전환
- 5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2%, 전년동기대비(1~5월) 3.8%를 각각 나타내어 상승세가 둔화되었고, 전월대비로는 0.2% 하락하여 2개월 연속 하락세

<표 6> 소비자물가 추이

(단위: %)

	2002년					2003년				
	8	9	10	11	12	1	2	3	4	5
· 전 월 비	0.7	0.6	-0.3	0.1	0.5	0.6	0.6	1.2	-0.2	-0.2
· 전년동월비	2.4	3.1	2.8	3.5	3.7	3.8	3.9	4.5	3.7	3.2
· 전년동기비	2.5	2.6	2.6	2.7	2.7	3.8	3.8	4.1	4.1	3.8

자료: 통계청, 2003년 5월중 소비자물가 동향

<표 7>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물가 추이

(단위: 2000=100, %)

	2002.6	7	8	9	10	11	12	2003.1	2	3	4	5
지 수	106.7	106.8	106.9	107.2	107.4	107.6	108.0	108.4	108.6	108.7	109.8	110.0
전 월 비	0.0	0.1	0.1	0.3	0.2	0.2	0.4	0.4	0.2	1.0	0.1	0.2
전년동월비	2.9	3.0	2.8	2.9	3.0	3.1	3.1	3.1	3.0	3.4	3.2	3.1
전년동기비	3.0	3.0	3.0	3.0	3.0	3.0	3.0	3.1	3.0	3.2	3.1	3.2

자료: 통계청, 2003년 5월중 소비자물가 동향

- 5월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는 전월대비 0.2%, 전년동월대비 3.1% 상승에 불과
- 따라서, 최근의 물가상승은 총수요 요인이 아닌 공급 요인에 따른 비용상승적 측면이 강하므로, 미·이라크 전쟁의 사실상 종전에 따른 유가안정, 농축수산물의 가격안정 등과 함께 하반기 총수요압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물가

## 상승세 둔화 예상

### － 생산자물가 및 수출입물가 2개월 연속 하락

- 금년 초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던 생산자물가는 4월부터 국제유가 및 환율 하락과 수요 부진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로 반전되어 5월에도 전월대비 0.4% 하락
- 수출입물가도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 하락, 국제유가 하락, SARS 확산에 따른 아시아지역의 수요부진 등으로 5월에도 내림세 지속
- 금년 초 생산자물가 및 수출입물가 상승세는 농림수산물,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 등이 주도하였으나, 국제유가 및 환율 하락과 수요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생산자물가의 상승세는 크게 둔화되고 수출입물가는 하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

<표 8> 생산자물가 및 수출입물가 추이

(단위: %)

	2002. 12	2003. 1	2003. 2	2003. 3	2003. 4	2003. 5
생산자물가						
· 전월대비	0.1	1.0	0.6	1.2	-0.8	-0.4
· 전년동월대비	4.6	5.1	5.2	5.8	3.9	2.8
수출물가						
· 전월대비	0.7	-0.5	2.5	2.7	-3.3	-2.4
· 전년동월대비	-1.1	-4.3	-3.6	-3.9	-7.1	-5.2
수입물가						
· 전월대비	2.2	0.9	3.5	1.8	-4.6	-2.2
· 전년동월대비	2.9	2.5	5.2	2.8	-3.5	-2.5

자료: 한국은행, 2003년 5월중 생산자물가 동향  
한국은행, 2003년 5월중 수출입물가 동향

## II. 경기바닥인가? 하강지속인가?



## □ 경기바닥 주장의 근거

- 미·이라크전의 파병결정이나 사실상 종결 등으로 한미공조관계의 개선과 함께 하반기 세계경기 및 수출 회복 가능성 예상
  - 주요 선진국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의 영향으로 하반기 이후 세계경제 회복 가시화 예상
  - 미국 주가가 4월초 오름세로 전환된 후 상승세를 지속하는 등 미국경제의 완만한 회복 기대
    - ※6월 13일 현재 3월말대비 상승률: Dow 지수 14.1%, Nasdaq지수 21.3%
  - 최근 반도체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있고 향후 IT경기회복 기대
    - ※256M DDR SD램(\$/개, 말일): 6.11(2002년 12월) → 4.22(2003년 1월) → 2.95(2월) → 3.24(3월) → 3.18(4월) → 3.19(5월) → 3.40(6월 10일)
  - 미·이라크전의 사실상 종결, 베네주엘라 석유생산 정상화 등으로 국제유가가 하락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국내 물가도 안정될 것으로 예상

<표 9> 원유수입관련 주요 통계 추이

구 분	2001 연간	2002 연간	2002. 5 (a)	2003. 4 (b)	2003. 5 (c)	차이(증가률, %)	
						전년비(c-a)	전월비(c-b)
국제유가(Dubai,\$/B)	22.82	23.81	24.73	23.47	24.27	-0.46(-1.9)	0.80(3.4)
도입단가(\$/B)	25.04	24.41	25.71	29.67	26.27	0.94(3.7)	-3.02(-10.2)
도입물량(백만B)	853	785	67.64	63.96	63.11	-4.56(-6.7)	-0.85(-1.3)
수입액(백만\$)	21,368	19,183	1,739	1,898	1,682	-57(-3.3)	-216(-11.4)

자료: 산업자원부, 2003년 5월 수출입 실적(잠정) 평가

- 수출 호조세 지속 및 무역수지 개선 예상

- 작년 3/4분기부터 높은 증가세를 나타낸 수출이 대중국수출 증가와 무선통신기

기 및 자동차의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금년에도 높은 증가세 지속

※금년 5월 중 자동차와 무선통신기기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24.2%와 19.4%의 증가를 나타내고 반도체도 소폭 증가(2.6%)로 전환

※수출이 작년 7월 이후 금년 4월까지 10개월 연속 두자리 수 증가세 지속

※금년 5월 중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4.4%의 증가에 불과하나, 조업일수 감소(2.3일)나 화물연대파업 효과 등의 여건을 고려하면 5월 수출이 부진한 것이 아니라고 정부는 주장

• 하절기에 들면서 SARS가 진정된다면 세계교역량 및 대중국수출 증가세 둔화가 개선되면서 SARS가 우리 수출에 미칠 영향이 제한될 가능성

• 1/4분기 적자를 기록한 무역수지도 미·이라크전의 사실상 종결과 함께 유가가 안정됨에 따라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며 경상수지도 개선될 가능성 존재

※5월 중 무역수지 12.7억달러 흑자로 1~5월 무역수지에는 10.7억달러의 누적 흑자 시현

※5월 중 수입이 국제유가 안정, 국내수요 부진 등의 영향으로, 수출 추이와 같이, 작년 7월 이후 11개월 만에 두자리 수 증가세에서 한자리 수로 크게 둔화

<표 10> 최근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단위: 통관기준, 백만달러, %)

구 분	2003년			2002년	
	1~4월	5월	1~5월	5월	1~5월
수 출	58,853 (20.5)	14,794 (4.4)	73,647 (16.9)	14,173 (6.5)	63,014 (-3.9)
수 입	59,051 (27.4)	13,527 (6.5)	72,578 (22.9)	12,698 (9.9)	59,045 (-3.0)
무역수지	-198	1,267	1,069	1,475	3,968

자료: 산업자원부, 2003년 5월 수출입실적(잠정)

— 실업률도 하반기에는 재정지출효과 등으로 개선 가능

• 작년 말부터 3%대를 기록하고 있는 실업률은 졸업생 구직활동 등의 계절적 요인이 소진되고 청년층 고용창출을 위한 추경예산편성 등을 통해 개선 가능

<표 11> 실업률 추이

(단위: 천명, %)

	2002. 5	2002. 12	2003. 1	2003. 2	2003. 3	2003. 4	2003. 5
· 실업자 (실업률)	689 (3.0)	702 (3.1)	789 (3.5)	822 (3.7)	807 (3.6)	756 (3.3)	744 (3.2)
· 계절조정실업률	3.1	3.0	3.1	3.0	3.1	3.2	3.4

자료: 통계청, 2003년 5월 고용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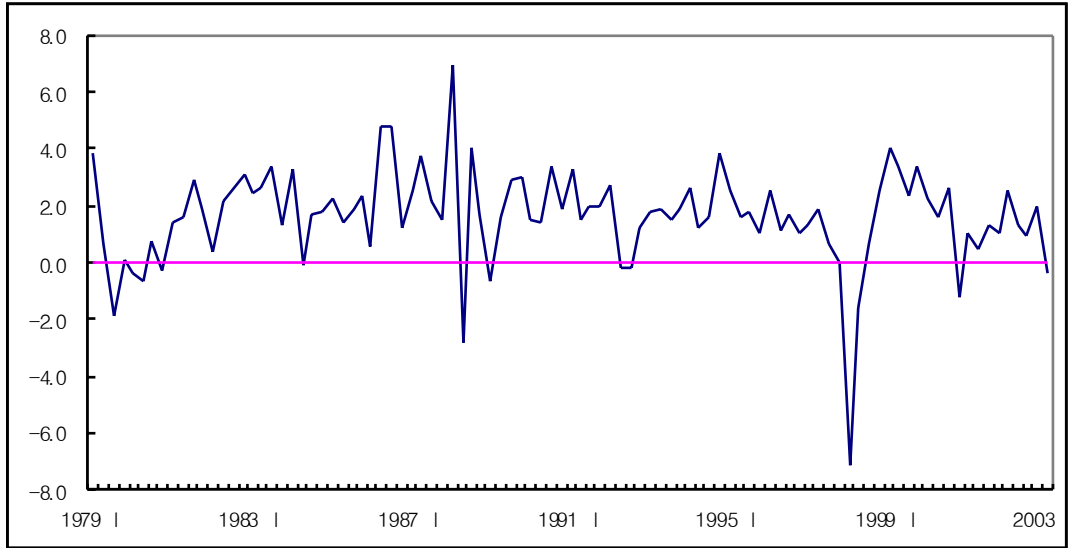
- 따라서 2/4분기를 저점으로 하반기에 콜금리 목표 인하(5월), 재정의 상반기 조기집행 및 추경예산 편성·집행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세계경제 회복에 힘입어 수출이 호조세를 나타내면서 경기회복 주장
  - 일반적으로 정책금리 인하효과가 약 3~12개월의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으로 예상

#### □ 경기하강지속 주장의 근거

- 소비 및 투자 위축 지속, 취업자수 감소 및 경기침체 우려
  - 금년 1/4분기 계절변동조정(S.A.) 실질 국내총생산이 전기대비로 0.4% 감소하였고, 2/4분기에도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경기침체(recession)에 빠질 가능성 상존
    - ※경기침체(recession)는 전기대비로 2분기 연속 감소를 나타낸 경우를 의미하고 과거 우리 경제에선 세 차례 경험
      - 1) 2차 오일쇼크로 인해 1980년 1/4분기와 2/4분기
      - 2) 1992년 2/4분기와 3/4분기
      - 3) 외환위기로 인해 1998년 1/4분기와 2/4분기

<그림 4> 계절변동조정 국내총생산 추이

(단위: 전기대비 %)



자료: 한국은행, 2003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잠정)

- 금년 1/4분기 계절변동조정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도 북핵문제 등의 지정학적 요인과 함께 수요 부진이나 향후 경기 불투명 등으로 인해 전기대비 2.1%와 0.3% 각각 감소

<표 12> 계절변동조정 실질 국내총생산, 민간소비, 설비투자 추이

(단위: 전기대비 %)

	2001 3/4	2001 4/4	2002 1/4p	2002 2/4p	2002 3/4p	2004 4/4p	2003 1/4p
국내총생산(GDP)	1.4	1.1	2.5	1.3	1.0	2.0	-0.4
민간소비	1.7	2.7	1.4	1.5	0.7	0.7	-2.1
설비투자	-2.4	4.7	5.4	-0.1	-2.0	4.2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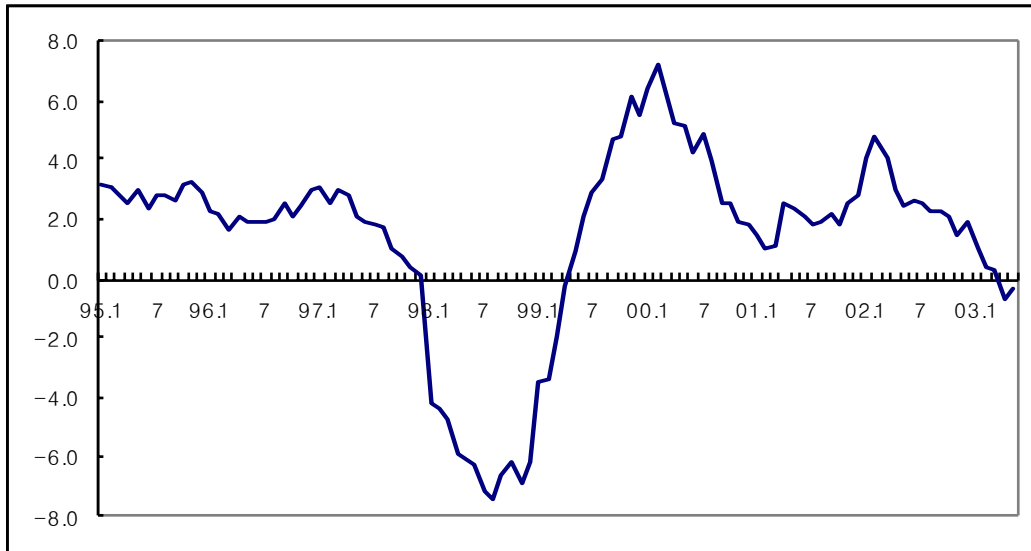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2003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잠정)

- 작년 말부터 취업자수의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하여, 금년 4월에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어 지속  
 ※이러한 고용악화는 가계부문의 주요 소득원인 근로소득을 감소시켜 소비심리 위축을 초래하고 소비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취업자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2.4%(2002년 5월) → 1.0%(2003년 1월) → 0.4%(2월) → 0.3%(3월) → -0.7%(4월) → -0.4%(5월)

<그림 5> 취업자수 증감률 추이

(단위: 전년동월대비 %)



자료: 통계청, 2003년 5월 고용동향

- 또한 향후 북핵문제의 전개방향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한미공조관계 개선도 아직 불투명한 상태

<표 13> 건설투자 관련 지표 추이

(단위: 전년동월(기)비, %)

	2002년				2003년			
	4월	3/4	4/4	연간	1/4p	2월	3월p	4월p
건설투자 (국민계정)	-	-4.6	6.0	3.3	8.1	-	-	-
건설기성액	0.3	-2.8	8.0	3.7	16.0	10.4	16.9	11.9
건설수주액	30.6	6.6	12.7	21.3	-2.0	44.0	-36.6	7.8
건설허가면적	76.0	22.4	24.1	42.0	3.4	-9.2	-2.5	-29.2

자료: 한국은행, 2003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잠정); 통계청, 2003년 4월중 산업활동동향

- 최근 강도 높은 부동산투기 억제책으로 하반기 건설투자도 둔화 예상

- 금년 1/4분기 우리 경제를 견인했던 한 축인 건설투자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책(주택가격 안정대책: 5월 23일)으로 2/4분기 이후 다소 둔화 예상  
 ※4월 건설기성액의 신장세는 다소 둔화: 16.9%(3월) → 11.9%p(4월)  
 ※4월 들어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와 건축허가면적은 혼조세

— 향후 반도체 수출 불투명

- 작년 우리 전체 수출의 10.2%를 차지하고 있는 수출효자상품인 반도체 수출이 1월부터 5월 20일까지 약 62.2억달러 수출하여 전년동기대비로 5.6% 증가율에 머문 반면,
- 동기간 반도체 수입은 약 78.2억달러 수입하여 31.6%의 높은 증가세를 시현하여, 금년 1월부터 5월 20일까지 반도체 수출입차가 약 16.0억달러 적자 기록  
 ※다만 5월 중 반도체 수출이 2.6%의 증가가 추정되어 3개월만에 소폭의 증가세로 전환 예상
- 또한 미국의 하이닉스 상계관세 예비관정 등에 따라 우리 수출 주요국의 수입 규제 강화 등이 예상되어 향후 반도체 수출 전망 불투명
- 금년 초 D램가격의 하락세 지속과 함께, 비메모리 반도체(휴대폰용 등), 반도체 부품, 반도체 제조용장비 등의 높은 수입증가가 반도체 수출입차 적자의 주요 원인  
 ※반도체 수입의 약 70%가 수출품목의 부품으로 사용되거나 재조립되어 수출  
 ※비메모리 집적회로 반도체: 11.1억달러 16.4% (4.1~20) → 10.2억달러 12.8% (5.1~20)  
 ※삼성전자 상반기 중 3,051억원 투자계획(300mm 웨어퍼 생산라인 전환 확대)  
 ※반도체 제조용장비: 1.4억달러 44.6% (4.1~20) → 1.2억달러 116.6% (5.1~20)

<표 14> 반도체 수출입 및 수출입차 추이

(단위: 억달러, 전년동기대비 %)

	2001	2002	2003. 1	2	3	4	5.1~20	1.1~5.20
수출	143.1 (45.2)	166.3 (16.6)	16.0 (39.6)	11.6 (2.0)	13.2 (-8.0)	13.5 (-1.3)	7.8 (-1.8)	62.2 (5.6)
수입	156.8 (-21.7)	174.8 (12.4)	16.0 (31.0)	15.9 (38.2)	19.7 (50.3)	16.4 (20.8)	10.2 (12.8)	78.2 (31.6)
수출입차	-13.7	-8.5	0.0	-4.3	-6.5	-2.9	-2.3	-16.0

자료: 산업자원부, 2003년 5월 수출입실적(잠정)

— SARS의 확산 등으로 인한 향후 수출 부진 가능

• SARS 등으로 인해 세계교역량 및 대중국수출 증가세 둔화 가능

※SARS의 영향으로 세계무역기구(WTO)는 금년 세계교역량 증가율을 5%에서 3% 미만으로 최근 하향 조정

※최근 한국은행(5월 13일)은 동남아지역의 SARS가 하반기 이후 진정되고 국내에서 환자가 발생·확산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SARS 확산으로 인한 이들 지역의 수출 및 관광수입 감소 등을 통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연간 0.3%p 정도 낮출 것으로 추정

• 금년 1월부터 5월 20일까지 우리 전체 수출의 약 17.0%, 6.9%, 3.5%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중국(전년동기대비 49.6% 증가), 홍콩(30.1% 증가), 대만 등에 SARS 확산으로 인한 본격적인 수출차질은 상담 이후 1~3개월의 시차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5월부터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

※6월 20일 오전 10시 현재 총 30개국 8,462명의 환자와 804명의 사망자 중 중국이 5,326명(62.9%)의 환자와 347명(43.2%)의 사망자 기록

※대중국수출 증가율(전년동기대비): 60.8%(1~3월) → 38.6%(4월) → 21.0%(5월 20일)

※직간접적인 수출차질은 중국 등의 현지 경기위축과 함께 선진국 바이어의 아시아지역 제품기피 정도 등에 따라 상담차질, 현지 마케팅 위축, 재고증가, 오더취소, 해외법인 조업단축 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

※산자부(6월 12일)도 6월 말로 SARS가 진정될 경우 수출차질액이 약 6억4천만

달러, 진정되지 않을 경우 연간 수출차질 누계가 15억3천만달러로 추산

<표 15> 주요국 수출실적 추이

(단위: 전년동기비 증감률, %)

	2001년	2002년	4/4	2003.1	2월	3월	4월	5월20일
미 국	-17.0	5.0	18.4	4.7	5.1	-0.4	2.1	-19.6
일 본	-19.4	-8.3	15.6	31.1	15.7	16.0	19.2	-0.2
중 국	-1.4	30.6	64.2	55.7	81.0	50.1	38.6	21.0
홍 콩	-11.7	7.3	13.8	24.1	35.8	26.7	35.3	28.0
대 만	-27.3	13.6	10.5	5.8	-2.3	-12.9	-14.7	-25.8

자료: 산업자원부, 2003년 5월 수출입실적(잠정)

- 또한, 금년 1월부터 5월 20일까지 우리 전체 수출의 17.9%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도 미·이라크전의 사실상 종결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급격한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한편 금년 1월부터 5월 20일까지 우리 전체 수출의 9.3%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도 구조적인 장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 더욱이 최근 화물연대 파업으로 5.4억달러 정도의 수출 및 선적 차질이 이미 나타났고 향후 물류비용 상승에 따라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다소 저하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하반기 수출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

— 향후 중소수출기업의 경영사정 및 자금조달 악화 가능

- 237.5억달러의 대중국수출에서 대기업이 107.5억달러(45.3%), 중소기업이 130.0억달러(54.7%)를 각각 차지하여, 주요 수출지역 중에서 중소기업의 대중국수출이 가장 활발

※작년 전체 수출: 대기업 843.7억달러(56.2%), 중소기업 657.9억달러(43.8%)



- 한편 작년 13.0억달러를 수출하여 대중국수출 1위 품목이자 중소기업비중이 75.7%(9.9억달러)인 휴대용전화기(무역협회 MTI code: 812110)의 수출증가세가 4월 들어 급격히 둔화되기 시작하여 5월 1~20일 동안 전년동기대비 40.7% 감소

※작년 전체 휴대용 전화기 수출 97.9억달러의 13.3%가 대중국수출

※대중국 휴대용 전화기 수출규모:

1월 1.5억달러(전년동월대비 969.3%) → 2월 1.2억달러(329.3%) → 3월 1.6억달러(390.3%) → 4월 0.8억달러(13.4%) → 5월 1~20일 0.3억달러(-40.7%)

※최근 휴대용전화기 대중국수출 격감 원인의 하나는 중국 기업의 저가제품 출시로 국내중소수출기업 휴대용전화기의 가격경쟁력 상실

- 따라서 SARS의 확산 및 지속 여부에 따라 대중국수출의 차질이 예상되어 중소기업의 경영사정이나 자금조달이 악화될 가능성 상존

— 미국 달러화 약세에 따른 수출기업의 수출채산성 악화 및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 가능

- 미국의 경기회복 지연, 경상수지 적자누증, 저금리기조 등에 따라 나타난 달러화 약세는 향후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우리 수출기업의 수출채산성 악화 및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 상존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가 5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수출기업 208개사를 대상으로 적정환율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적정 원/달러환율이 평균 1,229원으로 나타남.

- 특히, 중국 위안화가 달러화와 페그(peg)되어 있는 점과 최근 대중국수출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수출기업의 경영악화 예상

- 또한 달러화 약세가 지속됨에 따라 수출기업의 수출채산성이 적자로 돌아설 경우 수출물량을 내수로 돌리거나 수출을 포기하는 결과도 배제할 수 없음.

<표 16> 원/달러 환율 추이

	2001년	2002년				2003년					
	12월말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1월말	2월말	3월말	4월말	5월말	6월20일
원 /달러	1,313.5	1325.90	1201.30	1227.80	1186.20	1170.10	1193.70	1254.60	1215.30	1205.90	1186.00
	(3.1)	(-0.9)	(+9.3)	(+7.0)	(+10.7)	(+1.4)	(-2.0)	(-5.1)	(+3.1)	(+0.8)	(+0.6)

주: 1) 종가기준      2) 뉴욕시장 증가  
 3) 외환은행고시 대고객 매매기준율(당일 최종고시가)  
 4) ( )내는 전월말(전월동일)대비 절상(+), 절하(-)율(%)

- 우리 무역의 채산성을 나타내는 교역조건 크게 악화

- 금년 1/4분기 순상품교역조건이 1988년 한국은행의 통계편제 이후 최저치인 86.8로 전분기에 비해 4.3%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 소득교역조건도 101.8로 나타나 전분기대비 12.2% 악화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수출단가지수/수입단가지수)×100으로 나타내며 수출 1단위로 수입할 수 있는 수입량을 의미

※소득교역조건지수는 (순상품교역조건지수×수출물량지수)/100으로 나타내며 수출총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수입량을 의미

<표 17> 교역조건 추이

(단위: 2000=100, 전기대비 %)

	2002년					2003년			
	1/1	2/4	3/4	4/4	연간	1r	2	3p	1/4p
소득 교역조건지수	102.8 (2.4)	107.3 (4.4)	107.1 (-0.2)	115.9 (8.2)	108.4 (12.7)	103.2 (-7.8)	95.4 (-7.6)	106.8 (11.9)	101.8 (-12.2)
순상품 교역조건지수	102.2 (6.9)	96.0 (-6.1)	91.5 (-4.7)	90.7 (-0.9)	95.0 (-0.5)	89.4 (-2.5)	86.4 (-3.4)	84.7 (-2.0)	86.8 (-4.3)
수출단가지수	82.9 (2.5)	83.9 (1.2)	82.7 (-1.4)	82.6 (-0.1)	83.1 (-4.4)	84.7 (1.3)	84.5 (-0.2)	84.4 (-0.1)	84.5 (2.3)
수입단가지수	81.1 (-4.1)	87.4 (7.8)	90.4 (3.4)	91.1 (0.8)	87.5 (-3.8)	94.7 (3.8)	97.8 (3.3)	99.6 (1.8)	97.4 (6.9)
수출물량지수	100.6 (4.2)	111.8 (11.1)	117.0 (4.7)	127.8 (9.2)	114.1 (13.3)	115.4 (-5.4)	110.4 (-4.3)	126.1 (14.2)	117.3 (-8.2)

자료: 한국은행, 2003년 1/4분기중 무역수지 및 교역조건 동향

- 이러한 교역조건 악화로 인해 실질국민소득(GNI)이 금년 1/4분기에 실질 국

내총생산(GDP)이 전년동기대비로 3.7%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0% 감소

－ 향후 경상수지 적자 지속

- 경상수지는 만성적인 서비스수지 적자, 대외이자지급 증가 등으로 12월 이후 5개월 연속 적자를 나타내면서 금년 4월까지 21.1억달러 누적적자 기록
- 경상수지 적자지속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에서 미·이라크 전쟁과 북핵문제 등 대외여건변화와 함께 우리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

<표 18>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추이

(단위: 억달러)

	2002. 4	1~4	2003. 3	4p	1~4p
경 상 수 지	-0.9	15.0	-11.9	-3.9	-21.1
상 품 수 지	11.2	42.4	-0.6	12.5	24.7
서 비 스 수 지	-4.3	-19.3	-5.0	-3.5	-29.2
소 득 수 지	-7.3	-7.1	-4.3	-12.0	-8.9
경상이전수지	0.5	-1.0	-2.0	-0.8	-7.6
자 본 수 지	0.9	8.3	1.0	-9.1	0.3

자료: 한국은행, 2003년 4월중 국제수지 동향(잠정)

- 4월중 자본수지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만기상환,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순유출(10.3억달러) 등으로 9.1억달러 유출초 기록
- 금년 1~4월 중 29.3억달러의 서비스수지 적자 기록
  - ※금년 동기간 여행수지 및 기타서비스수지가 각각 13.9억달러와 24.0억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이 주요 원인
- 작년 동기간에 비해 여행수지 및 기타서비스수지의 적자가 각각 4.6억달러와 6.2억달러 증가하였고 여행수지 중 작년 동기간에 비해 유학·연수로 인한 적자 증가(1.3억달러)보다 일반여행으로 인한 적자증가(3.3억달러)가 큼.
  - ※금년 1~4월 중 기타서비스 중 특허권 등 사용료와 사업서비스의 적자가 8.0

억달러와 16.7억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사업서비스 적자가 여행수지 적자보다 큼.

※특허권 등 사용료와 사업서비스의 수입이 금년 1~4월 중 각각 3.8억달러와 20.9억달러에 그친 반면에 지급은 각각 11.8억달러와 37.6억달러를 기록

- 이와 같이, 서비스수지는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갖고 있음.
- 향후 무역수지 흑자개선 폭에 비해 서비스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그 적자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하여 경상수지적자의 향후 지속 가능

<표 19> 서비스수지 추이

(단위: 억달러)

	2002. 4	1~4	2003. 3	4p	1~4p
서비스수지	-4.3	-19.3	-5.0	-3.5	-29.2
운수	1.6	7.7	2.9	2.1	8.7
여행	-2.2	-9.3	-3.1	-1.6	-13.9
일반여행	-1.1	-5.3	-1.9	-0.4	-8.6
수입	4.7	16.9	4.3	4.0	16.0
지급	5.8	22.2	6.2	4.4	24.6
유학·연수	-1.1	-4.0	-1.3	-1.2	-5.3
기타서비스	-3.7	-17.8	-4.7	-3.9	-24.0
(통신)	-0.3	-1.1	-0.2	-0.2	-1.1
(특허권등사용료)	-1.7	-8.2	-1.5	-1.4	-8.0
(사업서비스)	-2.5	-12.2	-3.3	-2.9	-16.7

자료: 한국은행, 2003년 4월 중 국제수지 동향(잠정)

#### — 장단기 금리격차 축소 경향

- 장기시장금리는 SK글로벌 분식회계로 인해 일시 급등하였으나 금융시장 안정대책 이후 다시 하락세 지속
- 5월 13일 정책금리인하 이후 장단기 금리차가 일시적으로 다소 확대되었으나, 다시금 축소되어 장기금리가 단기금리 보다 낮아 경기하강국면이 장기화할 가능성 존재
- ※Estrella and Mishkin(NBER, 1995): 단기금리보다 장기금리가 아래로 내려갈

때 불경기로 들어가게 된다고 주장

- 국고채(3년) 유통수익률은 6월 들어 단기시장금리인 CD(3개월)나 CP(3개월) 보다 낮은 수준에서 최근 일시적으로 콜금리(익일물) 보다 낮은 현상 시현  
 ※회사채(3년) 유통수익률은 위험자산 기피경향 즉, 안전자산 선호경향으로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표 20> 주요 금리 추이

(단위: 말일, 연리 %)

	2000	2001	2002				2003					
	12월	12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20
콜(익일)(A)	6.01	4.00	4.27	4.28	4.27	4.52	4.34	4.26	4.25	4.25	3.99	3.96
CD(91일)	6.87	4.86	4.86	4.94	4.90	4.90	4.55	4.53	4.70	4.54	4.30	4.27
CP(91일)	7.26	5.07	4.95	5.07	5.03	5.03	4.68	4.64	5.27	5.21	4.79	4.62
국고채(3년)(B)	6.70	5.91	5.30	5.33	5.35	5.11	4.77	4.60	4.62	4.46	4.10	4.09
회사채(3년)(C)	8.13	7.04	6.00	5.95	5.96	5.68	5.29	5.14	5.38	5.32	5.21	5.35
B-A(%P)	0.69	1.91	1.03	1.05	1.08	0.59	0.43	0.34	0.37	0.21	0.11	0.13
C-A(%P)	2.12	3.04	1.73	1.67	1.69	1.16	0.95	0.88	1.13	1.07	1.22	1.39

자료: 한국은행, 일일주요금리동향(www.bok.or.kr)

– 하반기 금융시장 안정이 아직 불투명

- SK글로벌 분식회계, 카드채 문제, 신용불량자 및 가계부실화, 북핵문제 등과 관련된 한미공조관계 등으로 불안했던 금융시장이 최근 안정되고 있으나, 이러한 불안요인들의 하반기 해소가 아직 불투명한 상태
- 특히, 카드채 문제에 대한 연이은 금융시장 안정책(3월 17일, 4월 3일)으로 투신사 환매사태는 일단 진정되었으나, 6월말로 카드채에 대한 만기연장조치가 종료될 예정이어서 '7월 금융대란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회사채, 자산담보부증권(ABS), 기업어음(CP) 등을 포함한 카드채만기도래규모 3분기: 16조원, 4분기: 8.4조원
- 3월말 전 카드사의 조정자기자본비율이 10.2%로 개정 적기시정조치 기준인 8%

는 상회, 다만 국민카드는 8.1%, 현대카드는 8.2%를 기록하여 하위권 형성

- 4월말 9개 전업카드사가 한 달 이상 연체율은 10.9%로 상승 추세

※신용카드연체율(전업사): 6.6%(2002년 12월) → 8.4%(2003년 1월) → 10.4%(2월) → 9.6%(3월) → 10.9%(4월)

- 9개 전업카드사 1분기 1조3천억원의 당기순손실, 3조3천억원의 부실채권 보유

※1분기 말 3대 전업카드사의 부실채권 규모(비율): LG 1조원(관리자산기준, 3.1%), 국민 6.6천억원(6.8%), 삼성 6.3천억원(3.7%)

- 한편, 투신사 등 제 2금융권의 구조조정, 조흥은행 등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민영화 추진 등에 따라 노사관계 악화 예상

— 5월말 현재 개인 신용불량자 315만4천명으로 전 국민의 약 6.6%,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의 13.6% 차지하고 있고 금년 말 400만 예상

- 20대와 30대 신용불량자가 각각 61만7천명과 92만8천명을 기록하여 전체 신용불량자의 약 절반 차지(49.0%)

※현재 신용불량자 기준: 연체금액 30만원, 연체기간 3개월 이상

※5월 신규 신용불량자 증가폭 다소 둔화: 10.6만명(1월) → 9.6만명(2월) → 11.8만명(3월) → 12.9만명(4월) → 6.8만명(5월)

※30대 여성 신용불량자도 32만5천명으로 전체에서 10.3%를 차지했고 전월에 비해 4.1%(1만3천명) 늘어 증가폭이 가장 높음.

- 신용카드관련 신용불량자는 192만3천명 기록하여 전체 신용불량자의 61% 차지

- 3월말 현재 부도, 세금, 체납 등을 제외한 신용불량자 273.7만명 중 연체액이 1천만원 미만인 소액연체자가 144.7만명으로 52.9% 차지

※1백만원 미만: 29.8만명(10.9%), 1~5백만원: 92.9만명(26.2%), 5백~1천만원: 43.1만명(15.8%), 1~2천만원: 45.2만명(16.5%), 1억원 이상: 12.4만명(4.5%)

- 현재 추세로 증가한다면 금년 말까지 4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
- 참고로 2차례 단행된 신용사면 대상자 중 신용불량자로 재등록된 비율이 20%가 넘어 신용사면 효과가 적은 것으로 판단됨.
  - ※2000년 1월 17일: 11.8만명 중 2.8만명 재등록 (재등록률: 23.4%)
  - 2001년 5월 1일: 37.5만명 중 7.7만명 재등록 (재등록률: 20.5%)

－ 시중유동성의 ‘풍요속의 빈곤’ 현상 지속

- 풍부한 유동성에도 불구하고 향후 경기불투명과 함께 금융권의 보수적인 자금 운용이나 경영권 유지를 위한 자사주 매입 등으로 시중자금이 기업자금수요나 설비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 최근 시중유동성의 ‘풍요속의 빈곤’ 현상 지속
  - ※만기 6개월 미만 금융권 수신: 약 370조원 내외(전체 수신 평균잔액의 47.4%)
- 우량한 대기업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중장기적인 설비투자를 회피하면서 경영권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내부유보자금을 자사주 매입 등으로 소진
- 중소기업이나 비우량 대기업의 경우는, 기업대출에 대한 금융권의 리스크관리 강화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실정
- 또한 회사채, 기업어음 등의 수요부진, 국고채 등 안전자산 위주의 투신사 자산 운용 등과 함께, 회사채 프리미엄(회사채 유통수익률 - 국고채 유통수익률)의 상승 등에 따른 회사채 발행여건이 악화되어 기업의 직접자금조달 위축
  - ※회사채순발행(조원): -0.2(1월)→ -0.6(2월)→ -0.3(3월)→ -0.5(4월)→ -0.4(5월)
  - ※CP순발행(조원): 4.7(1월) → 1.6(2월) → -4.0(3월) → -4.6(4월) → -5.1(5월)
- 다만, 외국인투자자의 주식 순매도 경향이 5월 들어 순매수로 전환되었고 국내 주가도 미국주가와 동조현상을 나타내면서 5월 이후 상승세 지속
  - ※외국인투자자 주식순매수(억 원): -8,166(3월) → -7,588(4월) → 6,831(5월) → 11,859(6월 1~13일)

– 향후 경기불투명 등으로 기업의 정규직 채용계획이 크지 않아 3%대의 실업률을 지속과 비정규직 비중 상승 및 청년실업 대두 가능성 상존

- 3%대의 실업률이 지속될지라도 과도한 정규직 근로조건 개선요구 등으로 현재의 비정규직 비중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

-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임시근로자가 5월말 약 5백8만명(사상 최대)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약 35.0%를 차지(2000년 2월 이후 최고치)

-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도 최근 증가세

<표 21> 종사상지위별 추이

(단위 : %, 전년동월대비, %p)

	2002. 5.	2002. 12.	2003. 1.	2003. 2.	2003. 3.	2003. 4.	2003. 5.
상용근로자 비중	48.0	48.4	50.5	51.0	50.5	50.0	50.0
임시근로자 비중	34.6	34.3	34.6	34.5	34.7	35.1	35.0
일용근로자 비중	17.4	17.3	14.9	14.5	14.9	15.0	15.0

자료: 통계청, 2003년 5월 고용동향

- 더욱이 5월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7만2천명으로 전월대비 7천명(-8.9%) 감소했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7천명(10.8%) 증가

- 최근 경기부진에 따른 구직단념자수 증가를 반영하여 경제활동참가율도 전년동월대비로 감소세가 지속하고 있어 저조한 상황

<표 22> 구직단념자 및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단위: 천명)

	2002. 5.	2002. 12.	2003. 1.	2003. 2.	2003. 3.	2003. 4.	2003. 5.
구직단념자 (전월대비 %)	65 (-9.7)	39 (-4.9)	68 (74.4)	72 ( 5.9)	74 ( 2.8)	79 ( 6.8)	72 (-8.9)
경제 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	62.7 (0.5)	61.3 (0.3)	60.1 (-0.2)	60.0 (-0.4)	60.8 (-0.4)	61.5 (-0.9)	62.0 (-0.7)

자료: 통계청, 2003년 5월 고용동향



- 한편, 최근 15~29세의 실업자가 전체 실업자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청년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에 비해 2배 이상 높아 청년실업 문제 대두
  - ※또한 5월 중 15~19세의 실업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 동월에 비해 감소한 반면, 20~29세의 실업자 비중은 늘어나 20대 실업문제 보다 악화
- 향후 경기회복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의 신규인력채용이 불투명하여 청년실업문제가 지속될 가능성 상존
  - ※최근 노동연구원(6.6)이 올해 평균 실업률을 연초 전망치인 2.9%보다 0.4%p나 높은 3.3%가 될 것으로 전망하여 작년 연평균 실업자 71.2만명보다 많은 약 76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

<표 23> 청년 실업 추이

(단위 : 천명, %)

	2002	2002. 5.	2003. 1.	2003. 2.	2003. 3.	2003. 4.	2003. 5.
전체 실업자	708	689	789	822	807	756	744
15~29세(비중)	341(48.2)	323(46.9)	424(53.7)	443(53.9)	407(50.4)	361(47.8)	358(48.1)
15~19세(비중)	39 (5.5)	32 (4.6)	42( 5.3)	39 (4.7)	32 (4.0)	26 (3.4)	24( 3.2)
20~29세(비중)	302(42.7)	292(42.4)	382(48.4)	404(49.1)	375(46.4)	335(44.3)	334(44.9)
전체 실업률	3.1	3.0	3.5	3.7	3.6	3.3	3.2
청년 실업률	6.6	6.2	8.3	8.7	8.1	7.3	7.2

자료: 통계청, 2003년 5월 고용동향

- 이와 같이 지적인 원인 이외에도 노사관계 악화 등으로 경기하강국면이 지속될 수 있음.

### III. 정책대안

#### □ 국내불안심리 해소 및 경기부양적 거시경제정책 기조 유지

- 경기하강지속을 인식한 정책 운용 및 경기부양적 정책조합 추진 지속

- 금년 2/4분기에도 실질 GDP의 감소세가 지속되어 경기침체(recession)에 빠질 가능성과 경기하강지속 가능성을 인식한 정책 운용
  - ※현 경기상황 및 향후 경기를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
  - ※정부는 “현재의 경제상황이 전반적인 경기가 하강하는 어려운 국면이기는 하나 경제위기라고 볼 상황은 아님”이라고 주장(6월 13일 국회 재경위 재정경제부 보고자료)
- 통화정책, 환율정책, 재정정책, 조세정책 등 거시경제정책들의 정책시차 및 유효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경기연착륙 유도
- 이와 함께 미시정책도 동반하여 경직적인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와 함께 투자애로요인 해소를 통해 경기부양을 위한 기업투자활성화에 노력하고 위축된 민간소비활동 촉진
  - ※수도권 공장건설 규제, 비현실적인 환경기준 등 개선 요망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조정(에어컨 등) 등

— 국내외 경제주체들의 향후 우리 경제에 대한 불안심리 해소에 주력

- 북핵문제 등에 있어 한미공조체계 공고화 및 해외 국가신인도 제고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외평채 가산금리(bp): 197(3.12) → 183(3.13) → 150(이라크파병 국회통과, 4.2) → 113(4.16) → 103(4.30) → 95(한미정상 공동성명, 5.15) → 83(6.17)
-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 및 집행에 있어 일관성 및 정책신뢰성 확보, 부처간 정책공조 요망
  - ※법인세 인하에 대한 재경부와 청와대의 대립, 접대비에 대한 재경부와 국세청의 대립 등
- 참여정부의 개혁정책이 현 경기상황 및 기업현실에 걸맞은 합리성 견지에 노력하고, 노사정 공동으로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며 시장친화적인 개혁정책 모색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기업회계기준 및 근로조건 도입, 경력단절 상태의 근로자 재고용 및 재취업프로그램 확대, 비정규직 증가 억제, '생산성 격차'에 기초한 실질적인 정리해고제 도입,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등에 공동 노력

• 투자결정에 민감한 제도인 출자총액제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 금융계열사 분리청구제, 주5일근무제, 산별노조, 외국인 고용허가제 등의 예외 및 유예 조항이나 도입시기 등에 대한 심중한 검토 요망

• 법치주의에 기초하여 균형잡힌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불법적인 기업경영이나 파업행위 등을 철저히 처벌하며, 일관되고 투명하며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정책 및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최근 물류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는 화물차주들의 거의 모든 요구를 수용하여, 향후 여타 집단의 유사한 요구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어려움 예상

## □ 통화신용정책

— 경기하강지속 여부에 따라 정책금리의 점진적 연속 인하 고려

• 5월 13일 금통위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정책금리를 4.25%에서 0.25%p 인하

※한은은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도 0.25%p 만큼 하락한다면 기업 및 가계의 금융비용부담 경감 규모가 각각 연간 0.7조원 및 1.0조원으로 추정(2002년말 금융기관의 기업대출 잔액은 283조원, 가계대출 잔액은 391조원)

※6월 17일 한은은 콜금리인하 이후 개인 및 가계 대출금리가 0.27%p,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0.17~0.18%p 하락되어 연간 약 2조원 정도의 경기진작효과 예상

• 향후 물가상승압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기하강지속여부에 따라 정책기조를 분명히 하고 정책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책금리를 점진적으로 연속 인하 추진

• 금리조정 폭은 정책금리를 0.25%p 단위로 미조정하는 소위 '그린스핀의 아기걸

음마 방식(Greenspan's baby step)'을 활용하여 연속 인하

※본원이 최근에 전망한 금년 3/4분기 2.9%(전년동분기대비)와 4/4분기 3.0%의 경제성장률은 향후 정책금리를 3/4분기에 0.25%p를 한 차례 인하할 것으로 가정

※참고로, 정책금리인하에 보수적인(conservative) 유럽중앙은행(ECB)이 6월 5일 유로지역의 경기상태악화로 기준금리를 2.5%에서 2%로 0.5%p 인하(이미 작년 12월 0.5%p, 금년 3월 0.25%p 각각 인하)

※일부 전문가들은 6월 24·25일 미연방 공개시장조작위원회(FOMC)가 정책금리인 연방기금금리(federal fund rate)를 0.25%p 인하할 것으로 예상

•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시적 정책도 병행하여 소비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에 노력

※최근 부동산가격의 급등 문제도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가격 안정정책 등을 통해 부동산가격 급등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정책금리의 인하가 향후 물가상승압력을 크게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최근 물가상승원인이 공급측면 즉 유가나 농산물가격 상승 등에 의한 것이라는 점과 하반기에 소비나 투자 등의 총수요압력이 향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금리인하로 인한 향후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 — 시중유동성의 '풍요속의 빈곤' 현상 해소

• 풍부한 시중유동성이 기업자금수요나 설비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풍요속의 빈곤' 현상 및 기업의 회사채, 기업어음 등 직접자금조달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팽창적인 통화정책을 추진하여 금융시장의 유동성 강화

• 한편, 정책금리인하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 즉, 최근 투자 및 소비 부진의 원인이 시중유동성부족이 아닌 향후 경기불투명성이기 때문에 정책금리를 인하해도 투자가 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일리가 있음.

- 그러나, 정책금리인하에 따른 충분한 유동성으로 기업의 투자여건이 조금이라도 개선되고 금융권의 보수적인 자금운용이 한계를 갖게 되며 자금조달시장의 흐름이 개선될 수 있어 제한적으로나마 정책유효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

## □ 재정조세정책

- 중기재정적 시각에서 재정정책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하반기 경기하강국면이 지속될 경우 적자재정운용도 감수
  - 현재 진행 중인 예산조기집행을 보다 철저히 점검 요망되나, 금년 1~4월 통합재정수지가 약 12.4조원 흑자(사회보장성기금 포함)로 나타나, 정부가 내세운 정책기조와는 달리, 사실상의 긴축재정으로 판단되므로 보다 적극적인 재정지출 요망
    - ※정부는 상반기 재정집행규모 작년보다 10조 확대(상반기 집행률: 작년 47.2% → 금년 53.2%)
    - ※금년 1~4월 사회보장성기금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도 5.2조원 흑자 추정
    - ※작년도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5.1조원 흑자이고 금년에도 예산상 6.6조원 흑자 편성
  - 재정의 상반기 조기지출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하반기 재정지출 부족(작년 하반기에 비해 8.8조원 감소)을 보완하기 위해 추경예산 편성은 적절하다고 판단
    - ※본원이 최근에 전망한 금년 3/4분기 2.9%(전년동분기대비)와 4/4분기 3.0%의 경제성장률은 향후 추경예산을 통해 3/4분기와 4/4분기에 각각 2조원씩 추가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가정

<표 24> 2002년 및 2003년 재정지출 규모 비교

(단위 : 조원, %)

	상반기	하반기	연간 계획
2002년(A)	73.7조원 (47.2%)	82.3조원 (52.8%)	156.0조원
2003년(B)	83.7조원 (53.2%)	73.5조원 (46.8%)	157.2조원
B - A	10조원	-8.8조원	1.2조원

자료: 재정경제부

- 4.2조원의 추경예산은 일시적인 경기부양 보다 향후 동북아 중심국가건설, 지역 균형발전, 고용창출,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성장잠재력 확충에 도움이 되는 SOC투자 등 사회인프라 구축에 중점적으로 편성하되 연내 집행 항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불필요한 예산 재검토 요망
  - ※적자채권 발행없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가용재원(31,458억원)을 활용하고 법인세 등의 세수경정(10,317억원)을 통해 마련
  - ※4.2조원의 추경예산안은 연내 집행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SOC 등의 건설투자(15,374억원), 서민·중산층 지원(6,585억원, 청년실업대책: 962억원), 수출·중소기업 지원(5,901억원), 농가소득 보전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투자(3,857억원), 교부금 정산(9,364억원) 등을 중점적으로 편성
  - ※4.2조원(지방교부금 정산 제외시 3.4조원)의 추경으로 GDP 성장률 0.5~0.6%p 상승효과(하반기에만 0.3%p 진작효과 기대)
- 만약 경기하강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면, 8.8조원의 하반기 감소분을 보완하기 위해 4.2조원의 추경예산 이외에 명목 GDP의 약 1%(약 6.3조원)의 적자재정도 감수하는 수준에서 과감한 재정지출을 추진하되 향후 중장기적인 균형재정에 노력
- 4.2조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할지라도 금년 하반기 재정지출은 작년 하반기에 비해 4.6조원 감소하여 경기부양적인 추경예산으로 볼 수 없음.
  - ※4.2조원의 추경예산(안) 편성은 적자채권 발행없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가용재원(31,458억원)을 활용하고 법인세 등의 세수경정(10,317억원)을 통해 마련하므로, 약 6.3조원의 재정적자는 중장기 균형재정계획으로 해소 가능
  - ※6.3조원의 추가적인 추경예산은 작년 하반기에 비해 1.7조원 증가에 불과하며,

총 10.5조원의 추경예산으로 작년 일반회계 예산규모 109.6조원(전년대비 10.5% 증가)에서 10.5%만 증액한 121.1조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 추산(당초 금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7% 증액한 111.5조원)

※EURO의 경우도 각국의 재정적자를 경기여건에 따라 GDP의 3%까지는 허용 (Resolution of the European Council on the Stability and Growth Pact, Amsterdam, 1997년 6월 17일)

#### － 법인세 및 소득세 점진적 인하 및 각종 투자세액공제 확대

- 연결납세제도, 부동산세제,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조세 체계를 중장기적 시각에서 재검토
-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족한 세금을 보충하기 위해 소득과악이 미흡한 계층에 대한 세원 발굴 노력
- 우리나라 과세자 비율 58%를 고려할 때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소득세 과세미달점의 인하 노력
-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공평과세의 기본원리에 입각하여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를 위해 범정부적 조치 필요  
※예를 들어, 자영업자의 과표 산정에 있어 현재 및 향후 매출을 매우 잘 반영하고 있는 ‘권리금’ 등과 연계하여 산정
- 외국인직접투자를 보다 활발하게 유치하기 위해 투자유치 경쟁국과 비교하여 이에 걸맞는 법인세 인하 필요  
※주요국의 법인세 인하 추이: 캐나다(2005년 21%로 단계적 인하), 아일랜드(2003년 12.5%로 단계적 인하) 등
- 민간소비를 촉진하고 투명한 상거래 육성 및 세원 확보를 위해, 에어컨 등과 같이 이미 대중화된 제품들의 특소세과제 대상 제외나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상향

조정 등의 검토 요망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및 한도액 상향조정: 급여 10% 초과금액의 20% → 50%  
한도액 500만원 → 1,000만원 확대

• 기업투자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액공제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상시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느껴지고 있어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만으로는 투자유인강도가 미약하므로 정책유효성의 제고를 위해 현행 10%에서 15%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확대 실시

※현행 공제대상에 따라 3~7%인 세액공제율을 10% 수준으로 상향조정 필요

## □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

— 증권거래세 인하 등을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 모색

• 증권거래비용을 줄여 국내외 투자자의 주식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증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부과하는 0.3%의 증권거래세 등을 0.1%p 인하

※증권거래세(securities transaction tax)는 증권거래소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1996년 4월부터 0.15%, 코스닥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1996년 8월부터 0.3% 등의 탄력세율 적용

※이와 함께 증권거래소 시장의 경우, 2004년 6월까지의 한시적 목적세인 농어촌 특별세 0.15%를 추가적으로 적용

※증권거래세 수납액: 1.4조원(2000년), 2.7조원(2001년), 1.8조원(2002년)